

IV. 힌그늘미학에 나타난 증산의 화해와 상생

“힌그늘”의 어원은

정역에 기원한
이운규의 영동천심월
그림자가 세상을 바꾼다

A. 정역은 “영동천심월”의 해석에서 나온
“그림자가 세상을 바꾼다”는 그림자의 의미에 밝음이 추가

B. 생명이 율려를 지나 힌그늘로 진화

칸트의 순수이성-실천이성-판단력과 같은 수순
미메시스-미토스-카타르시스와도 같은 수순
선불유의 포태양생육대와 같은 관계

C. 영동천심월과 유불선

인식대상의 측면에서 주체와 객체가 합일된 세계의 자각을 이루고자 한 것이 도가사상이라면 인식주체의 측면에서 주체와 객체의가 합일된 인격성의 세계를 자각하고자 한 것이 불가사상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유가 사상은 자각에 그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각의 가능 근거로서의 존재 자체를 천명함으로써 그것을 근거로 하여 자각과 실천에 그 중심이 있음.

IV. 흰그늘미학에 나타난 증산의 화해와 상생

김지하의 흰그늘은
참동학의 의미, 복합화



IV. 흰그늘 미학에 나타난 증산의 화해와 상생

김지하 흰그늘의 일관적 이해

- A. 음양합덕 : x 는 $-x$ 이고 $-x$ 는 x . : 포태, 도교
만물의 기본적 원리로서 음양. 생명으로서의 리미널리티,
미메시스: 하늘을 처음으로 만남
- B. 신인조화 : x 는 x 도 $-x$ 도 아님.: 양생, 불교
위토스 (감정).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옴, 울려, 재활성화
신과 인간, 하늘과 땅이 이 각각 장점을 살린 신인조화
- C. 해원상생: x 는 x 이고 $-x$ 는 $-x$. 육대, 유교
로고스의 시작, 땅과 하늘이 인간에서 만남
카타르시스, 오랜 원한이 해소됨
- D. 도통진경: x 는 모든 것, 관왕, 기독교
테오스의 시작. 붉은악마의 엇박자와 같이 서로 다른 것이
조화를 이룸.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